무형문화유산이 더욱 찬연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이 베일을 벗고 등장할 때마다 중국인들은 그 기예 수준과 장인 정신에 재차 매료되고, 전통과 삶이 선사하는 미적 감흥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화문명을 한 층 더 깊이 이해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높인다.

2021년 6월, 중국에서 ‘인민과 함께 하는 우리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체험 행사가 열렸다.

‘랜선 무형문화유산 영상 전시회(雲遊非遺·影像展)’에서는 참신한 방식으로 중국 무형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었고 ‘백 년 백 가지 기예 전승(百年百藝·薪火相傳)’ 주제로 개최된 중국 전통 공예 전시회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매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 외에 7,000여 개의 무형문화유산 상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6만여 종에 달하는 무형문화유산 제품이 판매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잇따라 치러지면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더 향상되었다.

최근 몇 년간, 대량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설창되는 고전 서사시 『게사르 왕(格薩(斯)爾)』, 허저족(赫哲族)의 이마칸(伊瑪堪) 강창 예술, 항저우(杭州) 서호(西湖)의 녹차 제조 공예, 광둥성 차오저우(廣東省潮州) 지역의 자수(潮繡)·도자기(潮瓷)·지방극(潮劇)·공부차(工夫茶), 하이난성 리둥(海南省黎峒) 지역의 비단(黎錦), 장족(藏族)의 수공예 카펫(藏毯) 등 진주 같은 무형문화유산들이 중국 전역에서 찬연한 빛을 발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무형문화유산들은 현대인의 삶과 어우러지면서 문화 관광의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부상했고 최신 트렌드로 자리매김하였다.

조물주의 조화도 무색할 만큼 정교한 작품들은 대중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고, 대대로 전승되어 온 전통 기예는 드넓은 시장을 개척하였다. 다양하고 질박한 민속 명절과 축제들은 대중들의 마음속에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무형문화유산은 뿌리 깊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중화민족의 문화 정수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혁신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중화민족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며 우수한 전통문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5000여 년의 중화문명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은 중화문명의 명맥을 이어가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21년 5월,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제5차 중국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역사·문학·예술·과학적 가치를 승인받은 중요한 무형문화유산들이 등재되었다. 2021년 5월 24일 기준, 이 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은 1,557건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국가, 성, 시, 현 단위로 지정한 중국 특색의 대표목록 체계를 구축하여 10만여 건의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였다. 이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시스템 구축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중화문명이 여타 문명과 교류·소통하는 중요한

경로이기도 하다.

시진핑 총서기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전승을 강화하고 기예능 보유자를 적극 양성하여 무형문화유산으로 하여금 더욱 찬연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은 홀로 감상하는 ‘골동품’이나 외화내빈의 ‘명물’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 온 지혜의 결정체이고 살아 숨 쉬는 역사이다.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실생활의 한 부분이다.

무형문화유산이 베일을 벗고 등장할 때마다 중국인들은 그 기예 수준과 장인 정신에 재차 매료되고, 전통과 삶이 선사하는 미적 감흥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화문명을 한 층 더 깊이 이해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높인다.

오늘날 전승 단절 위기에 처했던 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이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전환시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현재 ‘캠퍼스에서 만나는 무형문화유산’, ‘관광지에서 만나는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쇼핑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중국 전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지방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마을 규칙에 기재하여 농촌의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국가급 빈곤현에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취업 공방을 설립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돕는 ‘황금열쇠’를 제공해주고 있다.

구석구석에 묻혀 있던 무형문화유산들이 빛을 보게 되면서,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생명력을 되찾고 전승·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이 실생활과 접목되어야만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민족의 부흥은 탄탄한 물질적 토대뿐만 아니라 강대한 문화적 역량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1년 5월, 중국 문화여유부는 국가 “제14차 5개년 계획”의 한 부분인 ‘무형문화유산 보호계획’에 무형문화유산의 조사·기록·연구 및 보호를 강화할 것에 관한 6가지 주임무를 명시하였다.

진주와 같은 무형문화유산들이 더욱 찬연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국의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고, 14억 중국 인민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문화적 자신감은 보다 역동적이며 지속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발걸음은 더욱더 힘찬 것이다. (汉译朝组集体讨论)